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 상위담화 표지어 연구

- 개정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민 정

# 상위담화 표지어 연구

- 개정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tadiscourse Markers

- Centering on revised highschool English textbooks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민 정

# 상위담화 표지어 연구

- 개정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고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민 정

김민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	vi
ABSTRACT .....	vii
 I. 서론 .....	 1
 II. 상위담화 표지어의 분류와 기능 .....	 2
2.1 상위담화 표지어의 정의 .....	2
2.2 상위담화 표지어의 분류 .....	4
2.2.1 Crismore et al.의 분류 .....	4
2.2.2 Nida Burneikaite의 분류 .....	6
2.2.3 Hyland의 분류 .....	8
2.3 상위담화 표지어의 기능 .....	12
 III. 연구 방법 및 결과 논의 .....	 24
3.1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25
3.2 교과서별 상위담화 표지어 빈도 .....	26
3.2.1 변화어(Transition) 빈도 .....	29
3.2.2 구조어(Frame Markers) 빈도 .....	30
3.2.3 지시어(Endophoric Markers) 빈도 .....	32
3.2.4 출처어(Evidentials) 빈도 .....	34
3.2.5 예시어(Code glosses) 빈도 .....	34
3.2.6 유보어(Hedges) 빈도 .....	38
3.2.7 촉진어(Boosters) 빈도 .....	39
3.2.8 태도어(Attitude Markers) 빈도 .....	40
3.2.9 계약표지어(Engagement Markers) 빈도 .....	41
3.2.10 자신언급어(Self-mentions) 빈도 .....	42
3.3 결과 논의 .....	43
 IV. 결론 .....	 45
참고문헌 .....	47
부    록 .....	52

## 표 목 차

표1. Crismore et al.에 의한 상위담화 표지어 분류.....	5
표2. Nida Burneikait에 의한 상위담화 표지어 분류.....	6
표3. 대인적 상위담화(Interactional Resources)의 요소와 기능.....	9
표4. 구조적 상위담화(Interactive Resources)의 요소와 기능.....	10
표5. 개정교육과정 구조적 상위담화의 세부 항목 비율.....	27
표6. 개정교육과정 대인적 상위담화의 세부 항목 비율.....	28
표7.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예시와 재진술 요소 비율.....	35
표8.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Exemplification(예시) 의 세부 항목 빈도.....	36

# ABSTRACT

## A Study on Metadiscourse Markers – Centering on revise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

Kim, Min Jung

Advisor : Prof. Lee, Ko-Hee, Ph.D.

Dep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tadiscourse markers, which explicitly organize the discourse and convey a writer's attitude to the text, in the reading parts of revise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o help students fully understand the functions of metadiscourse markers and use them properly.

To achieve this purpose, all of the sixteen revise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have been selected. First, all the reading texts are selected from the textbooks, and each reading text has been analyzed through Hyland's functional category of metadiscourse(2004), focusing on how metadiscourse markers are used in reading texts. In this process, WordSmith 5.0 which is one of corpus analytical tools is used to count how many the metadiscourse markers are used in the textbook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high school textbooks include various metadiscourse markers although the rates of using those marker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extbooks. In addition, while most of the metadiscourse markers are used quite equally in all the textbooks, some markers are used in just a few textbooks.

Second, Even though meanings are really similar, a few specific markers are used much more than the others.

Based on these results, I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students' reading and writing ability would be expected to be improved if students pay attention to those markers when reading and writing because metadiscourse are used to organize the discourse better and convey the writers' message to readers more effectively. Thus, more studies must be carried out to substantiate this finding. Further studies on the func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metadiscourse and their impact on readers and readers' comprehension need to be done so that the function of metadiscourse as a rhetorical tool can be further understood.

Second, as I mentioned before, we could see the different frequency rates between various metadiscourse markers depending on the textbooks. So further studies on what makes such a difference need to be done by studying more materials.

# I. 서 론

전 세계의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됨에 따라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교육이라는 과제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영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모든 기능을 골고루 학습해야 한다. 이 중, 문어(written language)인 쓰기와 읽기는 지면위의 글에만 의존하여 필자의 의도를 전달한다. 따라서 필자는 자신의 의도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조직하여야 하고, 독자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기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기법이 상위담화이다. 필자는 상위담화 표지어를 사용함으로써, 글을 좀 더 명확하게 조직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자신이 글에서 의도한 바를 독자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읽기와 쓰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독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볼 때, 결과적으로 상위담화 표지어는 읽기나 쓰기에서 필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욱이 고등학교에서의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살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전국연합모의평가의 외국어 영역에 출제되는 독해 문제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이러한 상위담화 표지어의 활용을 묻거나, 상위담화 표지어의 쓰임을 잘 파악하여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영어로 된 글의 내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어 영역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위담화 표지어에 대한 지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교육 현장에서 기본이 되는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상위담화 표지어가 얼마나,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과서의 읽기 자료에 나타난 상위담화 표지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담화를 명시적으로 조직하여 글에 대한 필자의 태도 및 글의 구조를 더욱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상위담화 요소가 개정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읽기 자료에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정리하여 제 2외국어로써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영어 상위담화 표지어의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자신의 글을 쓸 때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제2장은 상위담화 표지어의 분류와 기능에 대해 기술한다. 담화의 조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상위담화 표지어의 정의와 학자들에 따른 상위담화 표지어의 분류를 살펴본 후, 예시문을 통해 각 상위담화 표지어들의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제3장은 연구방법 및 결과 논의를 한다. 우선, 분석대상이 되는 교과서의 선정근거와 종류를 기술하고 이 교과서들을 분석할 분석기준이 무엇인가 기술한다. 둘째, Hyland(2004)의 상위담화 분류표를 기준으로 제7차 개정교과서의 읽기에 나타난 상위담화의 요소들의 특징과 각 요소들에 해당되는 교과서 예문을 살펴본다. 셋째,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자세히 논해본다. 제4장은 결론으로써 본 논문의 전반적인 요약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읽기 활동의 제언과 앞으로 필요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 II. 상위담화 표지어의 분류와 기능

본 장에서는 먼저 상위담화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학자들에 따른 상위담화의 다양한 분류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상위담화 표지어에 대한 예문을 통해 각각의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상위담화 표지어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 2.1 상위담화 표지어의 정의

필자는 글을 통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독자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능력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또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상위담화인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상위담화의

개념은 담화에 대한 담화이며, 필자와 독자사이의 사회적 의사소통적 작용으로써 글을 바라보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상위담화에 관한 언어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최초로 상위담화를 정착한 Harris(1970)는 상위담화를 담화에 관해 기술하는 담화라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하게, Williams(1996)도 상위담화란 글쓰기에 관한 글쓰기라고 하면서, 상위담화는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상위담화를 통해, 필자는 건조하고 어려운 내용을 통일성 있고, 독자친화적인 산문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어진 맥락에 관계시켜 개성, 진실성, 청중에 대한 민감성 및 메시지에 대한 관계를 전달할 수 있다.

최근의 언어학 분야의 상위담화에 관한 연구를 통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Crismore et al.(1993)은 상위담화라는 것은 담화의 비명제적 양상을 갖고 있지만, 일관성 있는 글로써 산문을 조직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정의로 Hyland(2004)는 상위담화란 담화를 조직하거나, 글에 대한 혹은 독자에 대한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양상을 가진 것으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쓰기와 읽기, 그리고 문단의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Ädel(2006)은 상위담화가 언어에서 반영의 한 형태, 즉 언어를 언급하거나 기술하는 자연어의 능력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믿는다. Vande Kopple(1997:2)은 상위담화가 참고자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자가 자료와 연결하여, 구조화시키고 해석하며, 평가해서 그 자료에 대한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담화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또한 상위담화는 문장 수준 이상에서의 원문에 대한 연구를 다루며, 담화를 조직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적 자원이나 글의 내용이나 독자를 향한 필자의 관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결합력 있는 대인관계적인 특징의 잡다한 연속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독자가 필자가 선호하는 방식과 특정한 담화 군집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의해 자료를 연결하고, 구조화하며, 해석하는 것을 돕는다.(Hyland, 2004; Vande Kopple, 1985)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위담화란 글의 내용에는 더함이 없이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를 표시해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필자의 의도, 글에 대한 태도 등을 명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글을 구성하는 효과적인 장치이며, 상위담화 표지어는 이러한 기능

을 하는 상위담화에 속하는 구체적인 표지어들을 나타낸다.

## 2.2 상위담화 표지어의 분류

상위담화 표지어의 범주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초창기에 Crismore et al.(1993)은 상위담화를 글 구조적 상위담화(Textual Metadiscourse)와 상호작용적 상위담화 (Interpersonal Metadiscourse)로 구분하였으며, Hyland(2004)는 Crismore et al.의 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이것을 수정하여 상위담화의 요소들을 다시 구조적 상위담화(Interactive Resources)와 대인적 상위담화(Interactional Resources)로 상위담화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Nida Burneikaite(2008)는 상위담화를 세 가지의 주요 범주 - 글 구조화 상위담화(Text-organising metadiscourse), 참여자 지향 상위담화(participant-oriented metadiscourse), 평가적 상위담화(evaluative metadiscourse) - 로 구분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세 학자들의 상위담화 분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2.2.1 Crismore et. al.의 분류

Crismore et. al.은 상위담화를 글 구조적 상위담화(Textual Metadiscourse)와 상호작용적 상위담화(Interpersonal Metadiscourse)로 구분하였다. 우선 글 구조적 상위담화는 글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사이의 논리적인 순서와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표지어로서, 담화를 구조화하는 것을 돕는다. 글 구조적 상위담화는 다시 글 구조 표지어(Textual markers)와 해설적 표지어(Interpretive markers)로 분류된다.

글 구조 표지어에는 논리적 연결어(Logical connectives), 단계어(Sequencers), 상기어(Reminders), 전환어(Topicalizers)가 있는데, 모두 글의 구조적 특징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어 글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 해설적 표지어들에는 예시어(code glosses), 언표의 표지어(illocution markers), 알림어(Announcement)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독자로 하여금 필자의 의도나 글쓰기 전략 등을 더 잘 이해하여 해석하는 것들 돕는 기능을 한다.

상호작용적 상위담화는 필자의 성격에 대한 표시이며, 글 속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는 것을 말한다. 상호작용적 상위담화는 의사소통의 두 가지 측면을 다룬다. 한 가지는 의사소통의 사회적 측면을 다룬다. 이것은 필자가 어떻게 자신을 언급하는지, 필자가 독자를 어떻게 언급하는지, 필자가 자신의 동료와 같은 제 3자를 어떻게 언급하는지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명제의 내용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다룬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상위담화에는 유보어(Hedges), 확실성 표지어(Certainty markers), 원인어(Attributors), 태도어(Attitude markers), 해설어(Commentary)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상위담화 표지어들의 기능과 예시는 <표1>과 같다.

표1. 상위담화 표지어 분류 (Crismore et al. 1993)

Category (분류)	subcategory (하위분류)		Function (기능)	Examples (예시)
Textual metadiscourse (글 구조적 상위담화)	textual markers (글 구조 표지어들)	Logical connectives (논리적 연결어)	생각들 간의 연 결을 보여준다	therefore, so, in addition, and...
		Sequencers (단계어)	자료의 단계 및 순서를 나타낸 다	first, next, finally, 1, 2,3...
		Reminders (상기어)	이전에 나온 글 의 자료를 나타 낸다	as we saw in Chapter one..
		Topicalizers (화제어)	주제 변화를 나 타낸다	well, now I will discuss
	Interpretiv e markers (해설적 표지어들)	Code glosses (예시어)	글 자료를 설명 한다.	for example, that is
		Illocution markers (언표외 표지어)	수행된 행동을 제시한다	to conclude, in sum..
		Announcements (알림어)	다음에 나올 자 료를 알려준다	in the next section..
Interpersonal metadiscourse (상호작용적 상위담화)	Hedges (유보어)		주장의 사실성 에 대한 불확실 성을 보여준다	might, possible, likely..
	Certainty markers		주장에 대한 완	certainly, know,

	(확실성 표지어)	전한 확신을 표현한다	shows...
	Attributors (원인어)	정보의 원천이나 근거를 제시한다	Smith claims that..
	Attitude markers (태도어)	필자의 감정적 가치를 보여준다	I hope/ agree, surprisingly
	Commentary (해설어)	독자와의 관계를 구축한다	you may not agree that...

## 2.2.2 Nida Burneikaite의 분류

Nida Burneikaite는 기존에는 두 개로 분류했던 상위담화를 <표1>과 같이 글 구조화 상위담화(text-organising metadiscourse), 참여자 지향 상위담화(participant-oriented metadiscourse), 평가적 상위담화(evaluative metadiscourse)의 세 개로 분류한다.

표2. 상위담화 표지어 분류 (Nida Burneikaite, 2008)

Category (분류)	Sub-categories (하위 분류)	Examples (예시)
글 구조적 상위담화 (Text-organising metadiscourse)	글 연결어 (text- connectives)	Firstly, Finally, next, Thus, so, However, Now, then, in short
	지시어 (endophoric markers)	The following paragraph, Next chapter, The previous section...
	담화표지어 (discourse labels)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Two questions are asked here...
	예시어 (code glosses)	That is, in other words, namely, also called, or...
	필자 지향어	I, My, We, Our, the author...

참여자 지향 상위담화 (Participant-oriented metadiscourse)	(writer-oriented markers)	
	포괄어 (inclusive markers)	It should be pointed out We, let us...
	독자 지향어 (reader-oriented markers)	You, the reader, consider, See, compare...
평가적 상위담화 (Evaluative metadiscourse)	완화어 (mitigation markers)	As far as I am aware, We will attempt to...
	강세어 (emphatic markers)	The following figure explicitly illustrates...
	태도어 (attitude markers)	It is important to mention, The practical value of this paper...

첫째, 글 구조적 상위담화는 필자가 펼쳐지고 있는 글의 구조에 안내표지를 세우고, 진행 중인 논의의 다양한 부분 사이에서의 구조적 연관을 알리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글 구조화 상위담화는 다시 글 연결어(text-connectives), 지시어(endophoric markers), 담화표지어(discourse labels), 예시어(code glosses)로 나뉜다. 글 연결어는 글이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으며 글의 여러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독자가 인식하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표지어들은 글을 통해 가능한 한 부드럽게 독자들을 안내하고 독자들이 기억 속에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구조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글 연결어에 해당하는 상위담화에는 'Firstly, Finally, next, Thus, so, However, Now, then, in short' 등이 있다. 지시어는 'The following paragraph, Next chapter, The previous section' 등이 해당되며, 담화표지어는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Two questions are asked here' 등을 가리키며, 예시어는 익숙하지 못한 단어나 전문 용어들이 사용되었을 때, 필자가 의도한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즉 예시어들은 필자가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정의하거나 설명할 표시를 해준다. 이러한 예시어는 'That is, in other words, namely, also called, or' 등이 있다.

둘째, 참여자 지향 상위담화는 필자가 자신을 보이게 만들거나, 독자가 담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다. 참여자 지향 상위담화는 필자 지향어(writer-oriented markers), 포괄어(inclusive markers), 독자 지향어(reader-oriented markers)로 나뉜다. 필자 지향어는 글 내에서 글을 쓴 필자를 언급하는 말로 'I, My, We, Our, the author' 등이 이에 해당된다. 포괄적 표지어는 'It should be pointed out, We, let us' 등이 있다. 독자 지향어는 글에서 그 글을 읽는 독자를 가리키는 말로 'You, the reader, consider, See, compare'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상위담화는 필자가 자신을 글에 위치시키고, 진행 중인 담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돕는 상위담화를 가리킨다. 완화어(mitigation markers), 강세어(emphatic markers), 태도어(attitude markers)로 나뉜다. 완화어에는 'As far as I am aware, We will attempt to' 등이 속하며, 강세어에는 'The following figure explicitly illustrates' 등이 해당한다. 태도어는 글의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말로, 'It is important to mention, The practical value of this paper'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2.3 Hyland의 분류

Hyland(2004)는 상위담화를 구조적 상위담화와 대인적 상위담화로 구분하고 있다. 구조적 상위담화(Interactive Resources)는 글 내용을 조직화하면서 글을 읽는 독자에게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표시해주는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은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텍스트에서 독자의 안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변화어(Transitions), 구조어(Frame markers), 지시어(Endophoric markers), 출처어(Evidentials), 예시어(Code glosses)가 구조적 상위담화(Interactive Resources)에 속한다. 구조적 상위담화에 속하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자. 우선, 변화어는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제들 사이에 부가적, 결과적, 대조적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이며, 'in additions, thus, but, and, also, however'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구조어는 담화행위, 순서, 혹은 텍스트 범위 표시 등을 통해 화행이나 문맥의 단계를 명확하게 언급해주는 요소로, 'finally, overall,

this result, in this paper' 등과 같은 표지어가 이에 속한다. 세 번째, 지시어는 해당 글의 다른 부분에 있는 정보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요소로, 'as follows, noted above' 등과 같은 것이 있다. 네 번째, 출처어는 다른 글의 정보를 언급할 때 그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자 하여 사용하는 요소로 'according to X, Z states, 사람 이름이나 년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예시어는 독자가 관념적인 자료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는 더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요소로 'namely, such as, in other words' 등이 있다.

표3. 구조적 상위담화(Interactive Resources)의 요소와 기능

Category(분류)	Function(기능)	Examples(예시)
변화어 (Transitions)	주절 간의 의미 관계 표현	in addition, and, but, also, however, thus, then, thereby, instead, yet, similarly
구조어 (Frame markers)	담화행위, 순서, 혹은 텍스트 단계(범위) 표 시	finally, to conclude, overall, this analysis, my purpose here is to, this result, the present study, the current study, in the chapter, in this paper, in case of
지시어 (Endophoric markers)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 표시	noted above, see Fig., in section 2, The first five, are the followings, as follows
출처어 (Evidentials)	다른 텍스트의 정보 출 처 표시	according to X, 사람이름, 년도, Z states, propose
예시어 (Code glosses)	독자가 관념적인 자료 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namely, such as, as , that is, in other words, especially, specifically, in particular, particularly, e.g., I.e.,(사람이름, 년도)

대인적 상위담화(Interactional Resources)는 글과 독자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반영하는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은 필자와 독자의 관계에 기여하고 필자의 친숙함과 거리감에 영향을 주며 주어진 명제에 관하여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명제의 타당도에 관한 입장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대인적 상위담화는 논증에 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유보어(Hedges), 촉진어(Boosters), 태도어(Attitude markers), 계약 표지어(Engagement markers), 자신 언급어(Self-mentions)가 이에 속한다. 유보어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완전한 단정을 유보시키는 것을 표현하는 요소로, 'may, might, seem, suggest' 등이 있다. 촉진어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확실성을 표현하거나, 명제를 강조하는 요소인데, 'in fact, definitely, strongly'가 대표적인 촉진어의 예이다. 태도어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 표현을 나타내는 요소로 'unfortunately, I agree' 등이 이에 속한다. 계약 표지어는 필자가 독자를 명확하게 참여자로 포함시켜 독자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나타내거나 형성하는 요소로, 'note that, you can see that' 등이 있다. 자신 언급어는 글 속 필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하는 요소로 'I, we, he' 등이 이에 속한다.

표4. 대인적 상위담화(Interactional Resources)의 요소와 기능

Category(분류)	Function(기능)	Examples(예시)
유보어 (Hedges)	명제에 대한 필자의 완전한 참여(단정)를 보류하는 것	may, might, would be, could, perhaps, possible, about, reveal, suggest, seem to, appear..
촉진어 (Boosters)	명제에 대한 필자의 확실성이나 설득력을 강조한 것	in fact, definitely, strongly, important, it is clear that, clearly
태도어 (Attitude markers)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 표현	unfortunately, surprisingly I agree....
계약 표지어 (Engagement markers)	독자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나타내거나 형성하는 것	consider, note that, you can see that...
자신 언급어 (Self-mentions)	필자에 대한 명백한 언급	I, we, my, the author, the writer...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학자들이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학자들 중 Crismore et al.와 Hyland는 비교적 유사점이 많다. 우선 두 학자 모두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범주의 명칭이 다를 뿐 하는 기능은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 두 학자 모두 글의 구조 및 내용과 관련된 상위담화 표지어와 글에 대한 필자의 감정 및 태도와 관련된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분류하였다. 즉, Crismore et al.의 글 구조적 상위담화(Textual Metadiscourse)와 Hyland의 구조적 상위담화(Interactive Resources)가 글의 구조 및 내용과 관련된 상위담화 표지어를 다루는 범주이고, Crismore et al.의 상호작용적 상위담화(Interpersonal metadiscourse)와 Hyland의 대인적 상위담화(Interactional Resources)는 글에 대한 필자의 감정 및 태도를 다루는 범주라 할 수 있겠다. Nida Burneikaite는 상위담화 표지어를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유형 중 하나는 글의 구조와 주로 관계가 있는 글 구조화 상위담화(Text-organising metadiscourse)를 다루고 있다. 결국 Nida Burneikaite도 글 구조와 관계가 있는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따로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Crismore et al.와 Hyland는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또 다른 하나의 범주로 분류한 반면, Nida Burneikaite는 담화표지어나 예시어와 같은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글 구조화 상위담화의 범주 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위해서 사용하는 글 구조적인 측면과 글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눈 Crismore et al.와 Hyland의 분류가 상위담화 표지어의 목적과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Crismore et al.의 하위분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우선은 글 구조적 상위담화를 글 주조 표지어와 해설적 표지어로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글의 내용을 나타내는 상기어(reminder)는 글 구조 표지어에 속한 반면, 앞으로 언급할 내용을 알려주는 알림어는 해설적 표지어에 속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의문점 하나는 논리적 연결어의 분류는 완전히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논리적 연결어는 글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Crismore et al.은 기능적이 아닌

통사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논리적 연결어에 'and'와 'but'과 같은 등위접속사와 연결적 부사어인 'therefore'나 'in addition'은 포함이 되는 반면, 'because'나 'which'와 같은 종속접속사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 이것에 대한 이유로 Crismore et al.은 종속접속사들은 문법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반면, 'and'나 'therefore'를 생략하고도 완전한 형태의 독립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상위담화 표지어의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표지어를 생략했을 때 그 문장이 문법상 옳으나 그르냐가 아니라 그 표지어가 문장에서 행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Hyland의 분류가 더 적합하며 또한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상위담화 표지어의 분류로 여겨지고 있어 Hyland가 분류한 10종류의 요소와 그의 기능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 2.3 상위담화 표지어의 기능

지금까지 상위담화 표지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서 위에서 살펴본 상위담화 표지어들의 기능을 알아보려고 한다. 예문들은 2007년과 2008년 고1 전국연합모의고사 문제에서 발췌하였다. 우선, 구조적 상위담화에 속하는 변화어(Transitions), 구조어(Frame markers), 지시어(Endophoric markers), 출처어(Evidentials), 예시어(Code glosses)에 해당하는 예문들을 통해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자.

첫째, 변화어(Transitions)는 아이디어 간의 의미 관계 표현하여, 다음 연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준다. 'likewise, however, therefore, thus'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변화어의 예시 문단이다.

- (1) Martha Stewart was the head of a company and one of the richest women in the U.S. However, she used illegal information to avoid losing only \$50,000 and she ended up in jail. Why did she do so? Prof. Nash said that Stewart had one big problem — she was greedy. “The definition of success today is to go for the maximum. That gets people in trouble. Stewart was addicted to making money. She didn't know when to stop.

She thought she could be happiest and wealthiest. Nobody can be all of those things,” Nash said. So, to have real success, we should be satisfied with what we have.

(2007학년도 10월 학업성취도평가 25번)

- (2) Trans fats are very dangerous. They increase total cholesterol level. They do the same thing as bacon grease does to kitchen sinks. That is, the fats block up the blood vessels. As a result, the blood stream in them is not smooth. Children who like fast food, candy, and cookies containing a lot of them are likely to get heart disease earlier. Therefore, parents should cut them out for their kids' health.

(2007년 3월 14일 서울교육청 학력평가 19번)

예시문 (1)번에서 'however'라는 변화어는 뒤에 나올 내용이 앞에 나온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일 거라는 것을 알려주며, 예시문 (2)번에서는 'Therefore'라는 변화를 통해, 뒤에 나올 내용이 앞에서 나온 쪽 설명한 내용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화어는 앞, 뒤 내용의 관계를 나타내주어, 독자로 하여금 글의 전후 관계 파악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는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둘째, 구조적 상위담화에 속하는 구조어(Frame Markers)는 담화 목적, 글의 단계, 순서 나열, 주제 전환을 위해 사용되는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일반적으로 구조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어(sequencing), 둘째, 단계를 표시해주는 단계 표지어(label stages), 셋째, 목적을 알리는 목적 알리기(announce goals) 넷째, 주제를 전환하는 주제 전환어(shift topic)이다. 순서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표지어로는 'first, second, third, last, finally' 등이 있으며, 단계 표지어에는 'so far, in brief, in short, to summarize' 등이 있다. 목적 알리기에는 'focus, purpose, intend to, would like to' 등이 있고, 주제 전환어로는 'now, well, move on, to look more closely'와 같은 표지어들이 있다. 다음은 구조어의 예시 문단이다.

- (3) Sometimes I see motorists throw cigarette butts, food containers, gum, and papers out of their vehicles while driving. Don't they know others find throwing litter out of cars disgusting? There are a few things that these people need to know. Firstly, throwing rubbish out of a moving vehicle is dangerous and you can be fined. Secondly, road cleansing is paid from our public taxes. The money could be better spent on other things. Besides, littered roads send out the wrong image to tourists. It's time for the drivers to think about them more seriously and stop making roads dirty. (2007학년도 고1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9번)

- (4) The bride-to-be decided to take her problem up with her mom. "Mom," she sai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my breath is truly awful." "Honey," her mother said simply, "In the morning, get straight out of bed, and head for the bathroom and brush your teeth. The key is, not to say a word until you've brushed your teeth." Well, she thought it was certainly worth a try. (2007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48번)

예시문 (3)번에 나타난 'Firstly, Secondly' 라는 순서를 나타내는 구조어를 통해, 글의 전개되는 구조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시문 (4)번의 'well' 이라는 구조어는 일반적으로 말을 계속하거나 화제, 내용을 전환할 때 사용된다. 예시문 (4)에서는 Munsu와 Peter의 대화에서 Munsu가 자신의 용건을 말하기 위해 내용을 전환하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구조어는 글의 단계나 순서를 제시하거나 주제 전환, 담화 목적 등의 파악을 돕는 기능을 하는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셋째, 지시어(Endophoric markers)는 해당 글의 내부에 있는 특정 부분을 지시함으로써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충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noted above, as follows'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지시어의 예시 문단이다.

- (5) The above graph shows the increase in the aging population in Japan,

Sweden and the USA. The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in all three countries is expected to increase to almost 25% by 2040. In 1940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more was 5% in Japan, about 7% in Sweden and 9% in the USA. While the figure for Sweden grew to about 15% in around 1980, the figure for Japan decreased to about 3%. However, a slow but gradual rise is predicted between 2030 and 2040 in Japan. It seems that the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in Japan will be the largest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2040. (2007학년도 고1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7번)

- (6) One day, my son showed me the picture above. He said, “Mom, you don't have to open the window every morning. This automatic window opener will do that for you.” It really is a clever invention. When the sun shines, its heat melts the ice cubes on the tray. Then, the water falls into a bucket, and the weight of the water makes the bucket down. The water-filled bucket pulls the rope connected to the window. Then the window opens up. My son added that in the evening he would take a shower with the water in the bucket so the window would get back to its original position.

(2007학년도 고1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1번)

예시문 (5)번에 나타난 'the above graph(위의 도표)'라는 지시어를 포함한 표현을 통해, 예시문의 위쪽에 도표가 있다는 것과 필자가 의도하는 도표는 위쪽에 있는 도표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예시문 (6)번의 'the picture above(위의 그림)'이라는 지시어 역시 글의 위쪽에 그림을 참고하라는 필자의 의견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시어는 글의 내부에 있는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표지어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충해 줌으로써 독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넷째, 출처어(Evidentials)는 글 외부의 정보를 인용함으로써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충해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according to~, A states that~'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출처어의 예시 문단이다.

- (7) When winds come down from high mountain areas, the winds fall faster and faster, and the air becomes warmer and drier. What do scientists say about the effects of this kind of weather? According to Russian scientists, powerful winds from the mountains increase the number of serious diseases that damage the brain. Also, sometimes strong southern winds blow north over Italy. During these times, researchers say, Italians have more heart attacks. People everywhere have bad headaches during times of forceful winds. And, Japanese weather scientists say there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reathing problems like asthma.

(2008년 6월 고1 전국연합평가 42번)

- (8) The above graph shows the history(1980~2003) and the prediction(2003~2030) of worldwide energy consumption. In 1980 the consumption of Oil is far more than twice as much as that of Natural Gas. Worldwide energy consumption from all three fossil fuels — Oil, Coal and Natural Gas — is predicted to increase by far higher than the others! Also the increase rate of Coal and Natural gas consumption after 2003 is almost the same. The use of Renewables is predicted to grow as well, but much less than that of fossil energies. The gap between Renewables and Nuclear is expected to become wider after 2003.

(2008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5번)

예시문 (7)번에서 'according to Russian scientists (러시아 과학자들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필자는 자신이 제시한 명제가 러시아 과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글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예시문 (8)번에서는 '1980년, 2003년' 등 직접적인 년도를 언급함으로써 글의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예시어(Code gloss)는 설명, 예시, 비유 등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충해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하는 구조적 상위담화이다. 예시어는 크게 예시(Exemplification)과 재진술(Reformulation)로 나뉜다. 예시는 첫째 unit을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 unit에서 예를 들어서 의미를 명시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자가 주제와 배경지식에 익숙해지도록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필자가 데이터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시를 나타내는 상위담화 표지어에는 'for example, for instance, an example of, like, such as, and, e.g.' 등이 있다. 반면 재진술은 앞서 진술한 메시지를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정교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위담화이다. 작문에서의 재진술은 미리 계획되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의미 전달이나 수사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독자의 이해 촉진을 위해 개념을 재정교화하는 담화기능을 한다. 'in other words, that is, that is to say, or, put another way' 등 다양한 표지어들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예시어의 예시 문단이다.

- (9) Some people choose to handle conflict through avoidance. *In other words*, they choose not to face the conflict. They simply put up with the situation, no matter how unpleasant it may be. While it is seemingly unproductive, avoidance may actually be useful if the situation is short-term or of minor importance. If, however, the problem is really bothering you or is persistent, then it should be dealt with. Avoiding the issue often uses up a great deal of energy without resolving the worsening situation. Very seldom do avoiders feel that they have been in a win-win situation. Avoiders usually lose a chunk of their self-respect since they so clearly neglect their own

concerns.

(2008년 10월 고1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 32번)

- (10) If you have ever seen someone buy a car, you will recognize the *low-ball* technique of encouraging acceptance. In the situation of car buying, the salesperson offers a “low ball” price that i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the competition. The *low-ball* technique gets you to be interested in a request that seems to cost little or nothing. **For example**, your roommate asks for a ride to the local ticket office, where she hopes to get tickets to a hot concert. Since the ticket office is only five minutes away by car, you say, “Sure, no problem.” Then your roommate tells you she has to be there by 5:00 in the morning because that’s when the line starts forming. If you agree, you’ve just fallen for the *low-ball* technique.

(2008년 10월 23일 인천시 교육청 24번)

예시문 (9)번에서는 'in other words'라는 표현을 통해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시문 (10)번에서는 'for example'이라는 표현을 통해 low-ball 기법에 대한 쉬운 예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더욱 쉽게 low-ball technique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이번에는 대인적 상위담화에 속하는 유보어(Hedges), 촉진어(Boosters), 태도어(Attitude markers), 계약 표지어(Engagement markers), 자신 언급어(Self-mentions)의 예문을 통해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자.

여섯째, 유보어(Hedges)는 필자가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역할을 한다. 'may, perhaps, about, approximately'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유보어의 예시 문단이다.

- (11) The above chart shows the number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staying in Korea from 1993 to 2005. Korean companies with foreign branches have been allowed to bring trainees into Korea since 1991. In the first few years, the number of foreign trainee entrants was relatively small, about 8,000 in 1993. However, we can see the remarkable increase in their number in 1999, approximately ten times as large as that of 1993. The rising number of industrial trainees reached its peak in 2000. Then, the number started to gradually decline between 2001 and 2003. This was followed by a sudden rise in the next two years.

(2008년 6월 고1 전국연합모의고사 35번)

- (12) Animals are capable of doing many things. Perhaps your goldfish swims to the surface looking for food when you move near its tank. Your cat may ring the doorbell when it wants to enter the house. Some animals can even do tricks. Circuses are filled with such animals as dancing bears and clapping seals. Performing tricks, however, is not truly a sign of intelligence. Such behaviors are often considered as signs of intelligence.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reason, and to solve a new problem by using previous experiences.

(2007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44번)

예시문 (11)번에서 '우리는 1999년의 수치에 있어서의 현저한 증가, 1993년의 수치의 대략 10배 정도,를 볼 수 있다'라고 정확한 수치가 아닌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필자가 국내 외국산업 근로자들의 수치의 변화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시문 (12)번에서는 'perhaps'는 필자는 독자에게 어항 쪽으로 사람이 가면, 금붕어가 먹이를 찾으면서 동시에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단정적으로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유보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있는 필자의 태

도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일곱째, 촉진어(Boosters)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확실성이나 설득력을 강조함으로써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충한다. 'obvious, definitely, certainly, of course'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촉진어의 예시 문단이다.

- (13) The bride-to-be decided to take her problem up with her mom. “Mom,” she sai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my breath is truly awful.” “Honey,” her mother said simply, “In the morning, get straight out of bed, and head for the bathroom and brush your teeth. The key is, not to say a word until you’ve brushed your teeth.” Well, she thought it was certainly worth a try. (2007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46번)

- (14) Some golfers like to play on ice near the Arctic. This allows them to enjoy beautiful views of the cliffs and peaks of ice mountains. Though golfers can enjoy beautiful scenery, they also face many difficulties. They have to wear goggles to protect their eyes from snow blindness. Of course, they cannot play golf with a white ball on an ice field because the ball would be too difficult to see. Many people use orange balls. The golfers also have to avoid being eaten by killer whales and polar bears, or falling into the freezing waters. Sometimes the ice field moves, so the course is different every day. Ice golf turns an otherwise leisurely sport into an extreme sport. (2008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36번)

예시문 (13)번에서 '그녀는 그것이 분명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에서 'certainly'라는 촉진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녀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예시문 (14)에서 사용된 'of course'는 필자가 누구라도 얼음판에서 하얀색 공을

가지고 골프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라 여기고 있는 필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축진어는 필자가 전달하려는 명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기능의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여덟째, 태도어(Attitude markers)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감정적인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글에 대한 필자의 놀람, 찬반, 중요성 등을 전달한다. 'surprisingly, absolutely right, I agree'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태도어의 예시 문단이다.

(15) Did you know that a bright room can make you happier and more hard-working? A recent study suggests that students do better on tests in sunny schools. Students are absent less often in these schools, too. More surprisingly, children seem to grow taller in schools with lots of sunlight. Daylight is also good for business. The use of natural light makes customers spend more money in stores. In offices, workers who have windows near their desks work harder than those who don't. They also miss fewer days of work. (2008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33번)

(16) It is no doubt that there are some beggars who are victims of unavoidable circumstances. Unfortunately, many people still choose to live on the streets and beg for money rather than face up to their financial problems. Giving money to them will surely make them remain beggars. It doesn't help them to find a job or seek the necessary help from the government. It will also make them depend on the charity of others. Even worse, there are many 'professional beggars' who are not in real need. They play on people's sentiments as an easy source of money. However, it's impossible to know who is

in real need or not.

(2007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49번)

예시문 (15)번에서 제시한 'More surprisingly(더욱 놀랍게도)'라는 태도어를 통해, '아이들은 많은 태양빛을 비추는 학교에서 더 크는 것 같다'는 명제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필자의 태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예시문 (16)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와 직면하기 보다는 여전히 길거리에 살면서 구걸하려고 한다는 점을 'unfortunately(불행하게도)'라는 표현을 통해 필자가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태도어는 전달하려는 명제에 대한 놀람, 안타까움, 기쁨 등 필자의 감정과 관련된 태도를 전달하는 기능의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아홉째, 계약 표지어(Engagement markers)는 독자를 직접 부르거나 주체로 끌어들이며 독자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나타내거나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suppose, consider that~, you can see'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계약 표지어의 예시 문단이다.

(17) In some parts of Russia, farmers use their fingers to multiply numbers from 6 through 10. The method is interesting. First, number your fingers from 6 to 10, as shown in Figure 1. Suppose you wish to multiply 8 by 9 ( $8 \times 9$ ). The tip of the 8-finger on the left hand is placed against that of the 9-finger on the right hand, as shown in Figure 2. The touching fingers, together with all fingers above them on both hands, represent tens. In this case there are seven such fingers, and seven tens are 70. The next step is to multiply the number of remaining fingers on the left hand by the number of those on the right. In this case, 2 times 1 ( $2 \times 1$ ) is 2. Then add 2 to 70; the final answer is 72. This method never fails in other cases.

(2008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29번)

(18) Most office desks do not help you do your work; they only delay decisions. Some executives have replaced their standard office desks with simple writing tables. Throwing their desks out of their offices has made office work much easier and faster. Supporters of the deskless office report that it improved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made people feel freer to talk. They no longer feel chained to a desk.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you may not need a desk. If you can get rid of it, try working without it and see what happens.

(2008년 9월 18일 서울시 교육청 32번)

예시문 (17번)의 '당신이 8곱하기 9를 하려고 한다 가정해보자.'에서 'Suppose(~라고 가정해보자)'와 예시문 (18번)의 '당신이 책상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에서 'Consider(~라고 생각해보자)'라는 표현을 통해 필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독자로 하여금 그 주제에 빠져들어 그저 글을 읽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글에 참여하게 한다. 이처럼 계약 표지어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로 독자를 참여시켜서, 독자와의 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의 상위담화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언급어(Self-mentions)는 글 속에서 필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글의 내용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 'I, we, my, mine, the author'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자신언급어의 예시 문단이다.

(19) My six-year-old son and I were shopping at a toy store when I saw a youngman in a wheelchair. He must have been in a terrible accident because his legs were missing and his face was badly scarred. Just then, my son saw him, too, and said loudly, "Look at that man, Mom!" I tried to keep him quiet but he went running to the man. He stood right in front of him and said in a loud voice, "What a nice earring, man! Where did you get it?" He seemed embarrassed by

the compliment but soon smiled with happiness.

(2007학년도 10월 학업성취도평가 19번)

- (20) Recently, a friend of mine received a call. The caller told him that he had won a free night's stay at an expensive downtown hotel. All he needed to do was pay the tax. The caller went on to ask him to give a credit card number. So, he told his credit card number to the caller. Later, he found that the hotel had no plan to offer a free night's stay and that thirty dollars had been withdrawn from his account. It's never a good idea to give your credit card number to anyone over the telephone without checking.

(2007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50번)

예시문 (19)번은 필자와 필자의 여섯 살 된 아들이 장난감 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겪은 이야기이므로, 이 글에 나타난 'I, my' 등은 모두 필자를 지칭하고 있다. 예시문 (20)번에서 'I'도 아무런 목적없이 단순히 수집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돈과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여기는 필자를 나타낸다. 이처럼 자신언급어는 글 속에서 필자를 직접 언급하여 글을 이끌어 가거나, 글의 내용에 관여를 하는 기능의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위담화 요소는 필자와 독자, 또는 글과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위담화의 요소들이 개정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해, 개정교과서에 나타난 각각의 상위담화 표지어의 예문과 더불어 고찰해 보겠다.

### Ⅲ. 연구 방법 및 결과 논의

3장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분석할 읽기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기본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분석 방법을 설정한다. 그 다음으로 교과서의 읽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상위담화에 대한 분석결과에 관해 논의해 보고, 상위담화에 해당하는 표지어

들이 교과서별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예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3.1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먼저 분석 자료를 살펴본 후 분석 방법에 대해 논해보겠다. 우선 분석 자료는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08년에 발행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중 국민공통 기본 교과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의 모든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현재 출판된 16종의 영어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전체 텍스트에서 읽기 본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 별로 단위 수와, 사용된 단어의 수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읽기 본문에서 상위 담화요소가 포함된 부분을 일차적으로 가려내었고, 그 후에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개정된 16종 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자. 단위 수와 각 단원에 사용된 단어 수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부록 1을 참고할 것)

첫째, 각 교과서마다 단위 수와 평균 단어 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6종 교과서중 10종 교과서는 12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고, 4종 교과서는 11개 과, 2종 교과서만이 10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교과서의 단위별 평균 단어수를 살펴보면 적게는 479개부터 많게는 755.7개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같은 교과서 내에서도 단위별로 사용된 단어의 수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두산(김) 6과는 1160개의 단어가 사용된 반면, 7과는 603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금성(권)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단위인 11과는 547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9과는 1036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단어의 수가 거의 2배의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단어의 수가 꼭 글의 난이도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글의 길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교과서에서 상위담화요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구현되는데, 하나는 텍스트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글이 구성되는지를 독자에게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구조적 상위담화(Interactive Resources)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명제에 대한 논평과 평가를 위해 필자의 명시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것으로, 글과 독자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대인적 상위담화(Interactional Resources)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모든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Hyland(2004)의 상위담화 분류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코퍼스 분석 도구인 Wordsmith 5.0을 사용하여 16종으로 구성된 개정 영어 교과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텍스트에서 모든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상위담화 표지어들이 제시된 맥락을 추출하여 각 표지어로서 기능을 하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that is'의 경우에는 'that'이 지시대명사로 쓰였거나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삭제시키고, 정보를 재진술하는 환언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을 포함시켰다. 'like'와 같은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 명사로 쓰인 경우는 모두 제외하고 전치사(~와 같은)의 의미로 뒤에 예를 제시하는 경우만을 포함시켰으며, 'or'의 경우에도 등위 접속사로 쓰였거나 명령문 뒤에서 쓰여서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제외시키고, 앞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이 분석에는 2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각자 추출한 표지어의 수를 함께 비교한 후, 차이가 나는 항목들은 다시 점검하여 왜 차이가 나는지 Wordsmith 5.0의 콘코던스 기능을 이용하여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검사자 간의 신뢰도를 유지하였다. 분류작업이 끝난 후, 각 교과서별로 어떤 표지어들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 3.2 교과서별 상위담화 표지어 분석

글의 내용에는 더함이 없이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를 표시해 줌으로써 독자가 필자의 의도, 글에 대한 태도 등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글을 구성하는 효과적인 장치인 상위담화는 텍스트에서 독자의 안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구조적 상위담화(Interactive Resources)와 논증에 독자를 참여시키는 대인적 상위담화(Interactional Resources)로 구분된다. 개정된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모든 개정 교과서에서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보다는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

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는 9802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상위담화요소의 62.05%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는 전체 교과서에서 5995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상위담화요소의 37.95%는 차지하는 수치이다.(부록 2를 참고할 것) 즉, 교과서에 제시된 글은 글 자체 내용 파악을 돕는 상위담화요소보다는 독자들이 글의 흐름과 구성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위담화 표지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조적 상위담화(Interactive Resources) 표지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표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변화어(Transitions), 구조어(Frame markers), 지시어(Endophoric markers), 출처어(Evidentials), 예시어(Code glosses)중에서 변화어가 전체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중에서 77.5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하고 있으며, 출처어가 0.72%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5 개정교육과정 구조적 상위담화의 세부 항목 비율

상위담화 출판사	변화어 (Transitions)	구조어 (Frame Markers)	지시어 (Endophoric)	출처어 (Evidentials)	예시어 (Code glosses)
금성권	288	31	13	1	61
금성이	319	44	5	0	70
능률장	330	23	4	1	35
능률찬	314	34	4	0	54
다락원	289	21	6	6	57
두산김	353	25	23	5	61
두산이	218	21	12	8	59
디딤돌	274	18	8	0	34
민중서림	354	31	9	1	41
성안당	352	26	15	5	42
시사	243	24	11	2	30
중앙교육	342	35	14	2	43

진학사	328	35	13	5	51
천재김	191	26	4	2	27
천재이인	247	20	3	2	16
천재이재	204	24	3	3	40
전체 비율 (%)	4646 (77.50%)	438 ( 7.31 %)	147 (2.45%)	43 (0.72%)	721 (12.03%)

셋째, 대인적 상위담화(Interactional Resources)는 유보어(Hedges), 촉진어(Boosters), 태도어(Attitude markers), 계약 표지어(Engagement markers), 자신 언급어(Self-mentions)로 나뉘질 수 있다. 총 사용 빈도수를 살펴보면 <표5>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신언급어, 계약표지어, 촉진어, 유보어, 태도어 순이었다. 이 중 자신 언급어가 37.5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태도어가 6.33%로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표6. 개정교육과정 대인적 상위담화의 세부 항목 비율

상위담화 출판사	유보어 (Hedges)	촉진어 (Boosters)	계약표지어 (Engagement)	태도어 (Attitude markers)	자신 언급어 (Self-mentions)
금성권	65	73	125	31	146
금성이	93	100	150	46	205
능률장	86	104	139	38	260
능률찬	73	131	188	43	208
다락원	95	110	119	37	246
두산김	84	94	174	41	247
두산이	113	140	210	43	207
디딤돌	113	101	151	38	344
민중서림	66	115	161	41	294
성안당	102	123	151	45	265
시사	85	137	148	35	310

중앙교육	97	132	172	54	275
진학사	94	106	150	40	124
천재김	73	85	120	41	178
천재이인	58	117	88	19	167
천재이재	79	98	113	28	205
전체 비율 (%)	1376 (14.04%)	1766 (18.02%)	2359 (24.07%)	620 (6.33%)	3681 (37.55%)

넷째, 대인적 상위담화에 속하는 요소들은 사용 비율이 6.33%에서 37.55%에 이르면서 좀 더 고르게 사용된 반면, 구조적 상위담화는 변화어(Transitions)가 77.5%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상위담화 표지어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10가지의 표지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 3.2.1 변화어(Transitions) 빈도

구조적 상위담화에 속하며, 주절 간의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 상위담화 표지어인 변화어는 개정교과서에서 나타난 구조적 상위담화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상위담화 표지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용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변화어에 속하는 여러 가지 표지어 중에서 개정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지어들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교과서에서 사용된 변화어는 대략 40여개로 다른 상위담화 표지어들보다 많은 종류가 사용되었다. 둘째, 변화어의 총 사용 횟수가 4646회인데, 이 중 and는 총 2812회가 사용되어 다른 어떤 표지어보다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밖에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된 변화어에는 'but, because, then, also' 등이 있었다. 셋째, 비슷한 의미를 지닌 변화어가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슷한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빈도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의미를 지닌 'therefore'와 'thus'는 각각 15회, 13회로 비슷한 빈도로 사용된 반면, 'however, on the other hand, yet'은 각각 148회, 17회, 3회로 사용 빈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록 2-1을 참고할 것)

변화어는 'likewise, however, therefore, thus'처럼 아이디어 간의 의미 관계 표현하여, 다음 연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로 10개의 주요 상위담화 요소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은 개정교과서에 나타난 변화어의 예시 문단이다.

(20)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visit this continent

to experience its extraordinary wildlife.

So it is natural that several African countries should have pictures of animals on their currency. In South Africa, for instance, each bill has a colorful image of an animal, including an elephant, a lion, and a buffalo. *Likewise*, a Tanzanian bill has a picture of a giraffe, and a Ugandan bill shows various animals, including a hippopotamus. These images of animals on its currency show us that Africa is not only a nature-friendly continent, but also a place where the tourism industry plays a major role in people's lives.

(능률 이찬승 3과)

예시 문단에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신들의 화폐에 동물의 그림을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예로, 우선 남아프리카의 지폐를 언급했다. 그런 후 'likewise'라는 변화어를 사용해서 또 다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진술과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likewise'가 교과서에서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 3.1.2 구조어(Frame Markers) 빈도

구조어는 담화 목적, 글의 단계, 순서 나열, 주제 전환을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담화의 목적을 나타내는 'I propose that~, I argue that ~, my purpose here is to~' 등이 있고, 글의 단계를 나타내는 'in sum, to conclude, in this chapter' 등과, 순서를 나타내는 'first, next, then, finally, one, the other', 주제 전환을 보여주

는 'well, now' 등이 구조어에 속한다. 개정교과서에 나타난 구조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개정교과서에서 구조어는 총 438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앞의 내용에서 결론을 지을 때 쓰는 문두의 so는 총 189회로 구조어의 43.15%를 차지하며, 순서를 나타내는 문두의 'then'은 총 105회로 구조어의 23.97%로 'so'와 'then' 이 두 개의 표지어가 구조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7%이다. 이는 개정교과서에서 쓰인 구조어가 이 두 개의 표지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앞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지어인 'so'와 'therefore'의 사용 횟수를 비교해보면, 'so'는 189회 사용된 반면, 'therefore'는 단지 15회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의미와 기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교과서에서 사용된 표지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2-2를 참고할 것)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구조어의 예시 문단이다.

(21) Miso: I didn't know that Seo Hui was such a great man.

Grandma: He was.

First, he studied the situation carefully before starting the negotiations. Next, he insisted that they enter into negotiations as equals. Finally, he continued to pay attention even after the negotiations were over.

By being so careful, he was able to succeed.

This happened a long time ago, but i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e power of negotiation in today's world as well.

One person's wise words can save many people's lives and change a nation's history forever.

Miso: I agree. We have a lot to learn from our ancestors.

Thanks for telling me that story, Grandma!

(천재 김 9과)

예시문에 나타난 'first, next, finally' 라는 순서를 나타내는 구조어를 통해, Seo Hui

가 협상을 하는 단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2) Munsu and Peter are chatting on the Internet.

Munsu uses the name Twin B and Peter uses the name Brown 1.

Peter, U there?

Munsu! LTNS. What's up?

Well, I have a question for you.

Shoot. The most striking development in the last few decades. Any ideas?

Wow! Big question. What for?

Homework.

(진학사 4과)

일반적으로 'well'이라는 구조어는 말을 계속하거나 화제, 내용을 전환할 때 사용된다. 예시문에서는 Munsu와 Peter의 대화에서 Munsu가 자신의 용건을 말하기 위해 내용을 전환하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 3.1.3 지시어(Endophoric markers) 빈도

지시어는 해당 글의 내부에 있는 특정 부분을 지시함으로써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충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구조적 상위담화에 속하는 표지어로 'Table X, X above, X below, Example X, Chapter X, Part X, noted above' 등이 대표적인 지시어이다. 지시어는 개정교과서에서 사용된 구조적 상위담화의 2.45%, 전체 상위담화의 0.93%로 교과서에서는 다른 상위담화 표지어에 비해 사용되는 빈도가 적었다. 지시어의 총 사용 횟수는 교과서에 따라 적게는 3회부터 많게는 23회까지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총 15개의 지시어에 해당하는 표지어를 조사를 했는데, 제일 다양한 지시어를 사용한 교과서조차 조사한 지시어의 채 절반도 안되는 6개의 지시어를 사용하였다.(부록 2-3을 참고할 것) 지시어는 일반적으로 표, 차트, 그림 등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여 독자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문이나 논설

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지어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교과서에서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그다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출처어의 예시 문단이다.

(23) Now, try to draw different expressions on the face.

The eyebrows and the mouth are important when showing emotion.

Look at the drawings below and try to draw

expressions of happiness, surprise, fear and anger on your face.

Now it's time to put the head on the body.

When you were a very little kid,

you probably drew a person like this, right?

(금성 이 10과)

예시문에 나타난 'the drawings below(아래의 그림)'이라는 지시어를 포함한 표현을 통해, 예시문의 아래쪽에 그림이 있다는 것과 필자가 의도하는 그림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4) Then they bring their hands and feet to the floor

and show off their strength with power moves.

At first, breakdancing was considered "low class" in Korea,

but that changed in 2006 when Korean B-boys dominated international competitions and won the world championships. Suddenly, Korean

B-boys were famous. As mentioned before, rap allows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Many teenagers like this free self-expression because the songs tell about the "ups and downs" of life.

However, there are many people who voice their concern about violent words in rap.

(진학사 9과)

예시문에서 나타난 'As mentioned before'라는 지시어를 통해, 다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글의 앞부분에서 한 번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2.4 출처어(Evidentials) 빈도

출처어는 글 외부의 정보를 인용함으로써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충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하는 구조적 상위담화에 속하는 표지어이다. 'according to~, A states that~' 등이 이에 속한다. 개정교과서에서 출처어는 총 43회 사용되었는데, 이는 총 5995회 사용된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 뿐만 아니라 전체 상위담화 표지어들 중에서도 가장 적게 사용된 표지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글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according to'가 개정교과서에서도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state\*, propose\*' 순이었다.(부록 2-4를 참고할 것)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출처어의 예시 문단이다.

(25) In fact, she has traveled 12 years into the future.

Scientifically speaking, time travel is not impossible

*according to Albert Einstein's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It involves traveling almost as fast as the speed of light,

which is 186,000 miles per second.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you approach the speed of light,

time begins to slow down.

(다락원 11과)

‘Albert Einstein의 상대성의 원리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필자는 자신이 제시한 명제가 상대성의 원리를 인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글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3.2.5 예시어(Code gloss) 빈도

예시어(Code gloss)는 크게 예시(Exemplification)과 재진술(Reformulation)로

나뉘지며, 설명, 예시, 비유 등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충해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for example, in other words, such as' 등이 이에 속한다. 교과서에서 사용된 예시(Exemplification)과 재진술(Reformulation)의 종류와 빈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현재 교과서에서는 예시보다는 더 다양한 종류의 재진술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총 사용빈도수를 비교해보면, 예시는 347회로 전체 예시어(Code glosses)사용의 48.46%를 차지하고, 재진술은 369회로 전체 예시어 사용의 51.5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사용빈도수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7.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예시와 재진술 요소 비율(Exemplification / Reformulation)

	Exemplification(예시)		Reformulation(재진술)	
	사용 종류	빈도	사용 종류	빈도
금성권	3	8	10	50
금성이	3	26	8	36
능률장	3	14	12	19
능률찬	4	19	9	27
다락원	3	26	11	28
두산김	4	28	8	24
두산이	3	21	8	32
디딤돌	4	20	8	9
민중서림	3	16	10	23
성안당	4	30	9	12
시사	3	17	7	13
중앙교육	3	20	6	22
진학사	3	16	11	34
천재김	2	12	8	15
천재이인	3	2	8	13
천재이재	3	28	7	12
평균 사용 종류 및 전체 비율	3.06개	347회 (48.46%)	8.75개	369회 (51.54%)

이번에는 교과서에서 나타난 예시와 재진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예시에 속하는 대표적인 상위담화 표지어들이 개정 영어교과서에는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표8.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예시(Exemplification)의 세부 항목 빈도

	for instance	for example	an example of	e.g.	like	such as	예시어 총 빈도
금성권	0	3	0	0	7	1	11
금성이	0	8	0	0	19	7	34
능률장	0	2	0	0	12	2	16
능률찬	2	6	0	0	15	4	27
다락원	0	2	0	0	20	6	28
두산김	0	8	1	0	21	7	37
두산이	0	4	0	0	20	1	25
디딤돌	2	3	0	0	13	7	25
민중서림	0	2	0	0	11	5	18
성안당	1	4	0	0	22	3	30
시사	0	3	0	0	10	4	17
중앙교육	0	4	0	0	13	3	20
진학사	0	5	0	0	7	4	16
천재김	0	2	0	0	10	0	12
천재이인	0	0	0	0	2	1	3
천재이재	0	4	0	0	16	8	28
총 빈도수	5회	60회	1회	0회	218회	63회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이, 'for instance, for example, an example of, e.g., like, such a's의 6개 예시 표지어(exemplification markers)중에서 like가 218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an example of'는 단 1회 사용되었다. 또한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상위담화 표지어 사이에도 교과서에 나타난 빈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for instance'와 'for example'는 뜻의 차이가 없어,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표지어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for example'은 60회, 'for instance'은 5회 사용되었다. 즉, 'for example'이 'for instance'보다 12배나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별로 잘 사용하고 있는 표지어와 그렇지 않은 표지어는 비슷했다. 하지만, 예시 표지어를 사용하는 횟수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천재(이인재) 교과서는 2개의 표지어를 단 3차례 사용했을 뿐이었지만, 두산(김) 교과서는 4개의 표지어를 37차례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예시의 예시 문단이다.

(26) The power of writing is great because it lasts for centuries.

It allows us to make use of the information recorded  
by our ancestors throughout history.

*In other words*, writing made it possible for human culture to advanc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writing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Korea is blessed because it has an easy and logical writing system: Hangeul. (진학사 8과)

위의 예시단락에는 두 개의 예시어가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글의 힘은 역사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 의해 기록된 정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다시 말해, 글은 인간 문화가 발전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에서 'in other words' 라는 예시어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표현을 달리하여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두 번째, 콜론(:)이다. 한국은 쉽고 논리적인 쓰기 체계: '한글'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예시문에서 쉽고 논리적인 한국의 쓰기 체계는 곧 한글을 가리킨다. 즉 콜론(:)은 설명, 열거, 소재목 달 때 사용되는 예시어이다.

다음으로는 재진술(Reformulation)에 속하는 대표적인 상위담화 표지어들이 개정 영어교과서에는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자.(부록 2-5를 참고할 것)

교과서에서는 예시보다 더 다양한 재진술 표지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재진술 표지

어들 중에서, 전혀 교과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지어들도 여러 개 있었으며, 교과서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지어들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능률(찬) 교과서는 총 27번의 재진술 표지어들을 사용했는데, 이중 12번은 (\*) 사용이었다. 또한 교과서에서 사용된 총 횟수가 비슷할지라도, 어떤 표지어는 많은 교과서에서 골고루 사용된 반면, 어떤 표지어는 몇 개 교과서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총 16번 사용된 'especially'는 전체 16종 교과서 중, 11개 교과서에서 골고루 사용된 반면, 19회 사용된 콜론(:)의 경우를 보면, 5개 교과서에서 사용되었는데, 더욱이 이중 12번은 두산(이) 교과서에서 사용된 것이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다른 글에서는 자주 볼 수 있어서 교과서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했던 'namely' 나 'that is to say'와 같은 표현들이 교과서에서는 단 한 차례로 사용되지 않았다.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재진술의 예시 문단이다.

(27) However, to communicate in English is not easy, especially for Asians.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their native languages, many Asian students become frustrated with learning English. The language differences cause them to make many mistakes. Learning a new language requires more than memorization. It requires trial and error. Good language learners do not worry about making mistakes. They understand making mistakes is a part of the learning process.

(금성 이 1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시(Exemplification)와 재진술(Reformulation) 표지어들이 교과서에서 사용된 빈도와 종류에는 차이가 있지만, 학생들이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 3.2.6 유보어(Hedges) 빈도

유보어는 대인적 상위담화에 속하며, 명제에 대해서 필자가 완전히 단정하는 것을 보류함으로써 필자가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

게 하는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may, perhaps, about, approximately' 등이 대표적인 유보어에 속한다. 유보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표지어는 'around'로 150회 사용되었고, 'may, often, seem, about' 등이 개정교과서에서 많이 사용된 유보어에 해당되는 표지어들이다. 유보어는 다른 표지어들과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고루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부록 2-6을 참고할 것)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유보어의 예시 문단이다.

(28) Think Different, Work Together

The students in Subin's class are talking about decorating their classroom. They need around 50,000 won to do it.

Many students think an equal amount of money should be collected from everyone. But some students do not agree.

How can we raise 50,000 won?

(천재 이재 4과)

예시문에서 '그들은 그것을 하기위해서는 '약 50,000원 정도(around 50.000 won)'가 필요하다'라고 정확한 액수가 아닌 대략적인 액수를 제시함으로써 필자가 교실 장식 비용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3.2.7 촉진어(Boosters) 빈도

촉진어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확실성이나 설득력을 강조함으로써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충하는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obvious, definitely, certainly, of course' 등이 이에 속한다. 개정교과서에서는 몇 개의 촉진어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았다. 다시 말해, 편중되어 사용되는 특정 촉진어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교과서에서 사용된 촉진어의 횟수는 1770여 번이었는데, 이 중 'think/ thought'가 총 320여 번, 'know'가 252번, 'show'가 140번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really, true, truly, never, always' 등도 100회 정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must, of course'와 같이 필자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 강한 확실성

을 표현하는 촉진어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다.(부록 2-7을 참고할 것)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촉진어의 예시 문단이다.

(29) No, thanks. From now on, you boys can dance by yourselves.

(The boys all look at each other. They certainly don't want to dance together.) If you change your mind, don't call us, just be on the stage Friday.

(다락원 6과)

예시문 (29)에서 '확실히'라는 촉진어를 통해 "소년들은 함께 춤추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명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필자의 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

### 3.2.8 태도어(Attitude Markers) 빈도

태도어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감정적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글에 대한 필자의 놀람, 찬반, 중요성 등을 전달하는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surprisingly, absolutely right, I agree' 등이 이에 속한다. 다른 표지어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교과서 별로 사용된 총 태도어의 횟수가 조금 더 고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총 사용 횟수가 비슷한 상위담화 표지어를 비교해보자. 개정교과서에서 사용된 총 태도어의 횟수는 600여번이다. 그리고 예시어의 사용횟수는 700여번이었다. 제일 적게 태도어를 사용한 교과서는 20회 정도이고, 제일 많이 사용한 교과서는 50회 정도였는데, 이에 반해 예시어는 적게는 16번에서 많게는 70번까지 사용되었다. 그리고 많은 태도어들 중에서도 개정교과서에서는 'even'과 'important'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태도어들은 10~40여회를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태도어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부록 2-8을 참고할 것)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태도어의 예시 문단이다.

(30) In addition, yellow dust causes huge economic damage.

Crop production drops because the dust particles block sunlight and prevent crops from growing well.

Surprisingly, yellow dust also influences the high technology industry.

The fine dust enters electronic devices and prevents the factories from working properly.

(두산 김 4과)

예시문 (30)에서 제시한 '놀랍게도'라는 태도어를 통해, '황사가 고도 기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랄만한 일'이라는 필자의 태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지어들을 통해, 독자들은 주어진 명제에 대한 필자 감정이나 태도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 3.2.9 계약 표지어(Engagement markers) 빈도

계약 표지어는 독자를 직접 부르거나 주제로 끌어들이며 글의 내용과 독자의 관계를 명백하게 나타내거나 형성하는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대표적으로 'suppose, consider that~, you can see' 등이 이에 속한다. 개정교과서에서 계약 표지어는 총 2359회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 중 24.07%에 해당하는 수치로 많이 사용된 표지어 중 하나이다. 또한 계약 표지어에 속하는 몇몇 표지어들은 교과서별로 고루 사용되기도 하고, 편중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suppose'는 총 15회 사용되었는데, 두산(김) 교과서에서는 4회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전체 사용 횟수의 25%에 해당하는 반면, 금성(권), 능률, 시사, 중앙교육 등 9개 교과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think of'는 14개 교과서에서 총 22회 사용되었는데, 각 교과서별로 1~3회 사용하여, 사용 횟수가 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록 2-9를 참고할 것)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계약 표지어의 예시 문단이다.

(31) Unlike the people in the past, however, we don't have to invent our own

codes. Encoding and decoding are done by computer programs.

Suppose a person is sending an important e-mail.

The e-mail can be encoded by a computer program.

(두산 김 8과)

예시문 (31)의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만의 코드를 발명할 필요가 없다.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행해진다.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메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암호화될 수 있다.’에서 ‘~라고 가정해보자’라는 표현을 통해 필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독자로 하여금 그 주제에 빠져들어 그저 글을 읽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글에 참여하게 한다.

### 3.2.10 자신 언급어(Self-mentions) 빈도

자신언급어는 글 속에서 필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글의 내용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이다. 대표적으로 'I, we, my, mine, the author'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자신 언급어는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비중은 전체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의 37.55%였다. 필자가 자신을 언급하는 자신 언급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지어는 'I'로 1649회 사용되었으며, 글 속 필자를 지칭하는 'the writer'와 'the author'는 각각 5회, 4회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서는 필자가 자신을 언급하는 1인칭 관점의 글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 2-10을 참고할 것)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자신언급어의 예시 문단이다.

(32) Episode 2: It's time for us to leave.

Where: At a party in England

Who: Martha, a British teacher, Japanese students

*I* had just started teaching English to a group of Japanese students in London.

I wanted to know the students more informally,  
 so I invited them to my house for a party.  
 The students all arrived together at exactly 8:00 p.m.  
 They looked pleased with the party:  
 They danced, sang, and ate most of the food. At about 10:00 p.m.,  
 one of the students said to me, I think its time for me to leave.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arty.  
 Then all the other students got up to go,  
 and all left at the same time. I didn't understand why, and I got  
 upset. I wondered whether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party.

(천재 이재 3과)

위 글은 영국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의 에피소드를 다룬 글로, 예시문 (32)에 나타난 'I'는 런던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주인공 Martha로, 이 글을 쓴 필자이다. 따라서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글로, 필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개정교과서에서 다양한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글을 신뢰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3 결과 논의

앞에서 살펴본 개정교과서에 나타난 각각의 상위담화 표지어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우선 상위담화 표지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해 모든 교과서에 사용된 읽기 자료에는 상위담화 표지어를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가장 적게 상위담화 표지어를 사용한 교과서는 천재교육(이인재 외)으로 상위담화 표지어를 737회 사용했으며, 가장 많이 상위담화 표지어를 사용한 교과서는 성안당으로 1126회 사용했다. 총 16종 교과서중 10개 교과서는 1000

회 이상의 상위담화 표지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상위담화 표지어가 모든 교과서에 사용이 되긴 했지만, 각 교과서에 사용된 상위담화 표지어들의 비율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상위담화 표지어를 크게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와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로 나누어 생각해봤을 때, 모든 교과서에서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Interactive Resources)보다는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Interactional Resources)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두 범주에 속한 표지어들의 사용 빈도의 차이가 가장 적은 교과서는 금성(권)으로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는 394회,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는 440회 사용하여 둘의 차이가 46회에 불과한 반면, 차이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시사교육으로 구조적 상위담화는 310회,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는 715회 사용하여 그 차이가 무려 405회에 이르렀는데 이는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가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보다 2배 이상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교과서에 사용된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와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를 살펴보자.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에는 변화어, 구조어, 지시어, 출처어, 예시어가 속하는 데, 모든 교과서에서 다른 어떤 표지어보다도 변화어가 77.5%로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에 출처어는 0.72%로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적게 사용된 표지어이다.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에는 유보어, 촉진어, 계약표지어, 태도어, 자신언급어가 있다. 두산(이)와 진학사를 제외한 14개 교과서에서 자신언급어(37.55%)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교과서에서 태도어(6.33%)의 사용이 가장 적었다. 그리고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보다는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들이 더 고르게 사용되었다. 즉, 구조적 상위담화 표지어는 변화어(77.5%), 구조어(7.31%), 지시어(2.45%), 출처어(0.72%), 예시어(12.03%)이며, 대인적 상위담화 표지어는 유보어(14.04%), 촉진어(18.02%), 계약표지어(24.07%), 태도어(6.33%), 자신언급어(37.55%)이다.

10개의 상위담화 표지어에 속한 많은 표지어들 가운데 전혀 교과서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많았다. 다시 말하면,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 표지어라 할지라도 교과서에서 사용된 횟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많은 글에서 사용되어 교과서에서도 자주 쓰일 것이라 예상했던 상위담화 표지어들이 전혀 교과서에

서는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for example'과 'for instance'를 예로 들어보자. 두 표지어는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의 사용 횟수를 비교해보면 'for example'은 60회 사용된 반면, 'for instance'는 5회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글에서 접하는 'furthermore, namely, that is to say, on the contrary, by contrast' 등은 개정교과서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담화를 명확하게 조직하고 필자의 태도를 글에 반영하는 상위 담화의 요소가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코퍼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코퍼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개정 교과서 본문에서는 비율은 각기 다르지만 다양한 상위담화 요소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정 교과서에는 Hyland(2004)의 분류 기준에 따른 상위담화 요소들이 잘 나타나 있었으며, 텍스트에서 독자의 안내를 돕는 구조적 상위담화(Interactive Resources : 37.95%)보다는 논증에 독자를 참여시키는 대인적 상위담화(Interactional Resources : 62.05%)가 많이 나타나 있었다. 또한 전체 상위담화 표지어 중에서 주절 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변화어(transitions : 29.4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자에 대한 명백한 언급의 자신언급어(self-mentions : 23.30%), 독자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나타내거나 형성하는 계약 표지어(engagement markers : 14.93%)순이었다.

둘째, 대부분의 상위담화 표지어는 교과서에서 전반적으로 고루 사용되고 있었지만, 일부 표지어들은 교과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예시어는 천재교육(이인) 교과서에서는 총 16번 사용된 반면, 금성(이) 교과서에서는 총 70번 사용되어, 그 사용 횟수가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동일한 의미 지녔다할지라도, 특정 상위담화 표지어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구조어에서 결론을 도출하거나 요약할 때 쓰이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표지어인 'therefore, so, hence'의 횟수를 비교해 보면, 'therefore'는 15회, so는 189회 사용되었고, 'hence'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as a result'와 'as a consequence'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사용빈도는 대략 16배 정도 차이가 났다.

넷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글에서 접하게 되는 표지어들 중 일부가 교과서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시어 표지어인 'that is, or, in other words, namely' 등은 전체 16종 교과서에서의 사용 횟수가 10회 미만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상위담화 표지어의 다양한 기능과 더불어 각 교과서별로 사용되는 상위담화 표지어들간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위담화 표지어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상위담화 표지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여, 영어 학습자들이 상위담화 표지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상위담화 표지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글의 구조나 글 내용의 이해를 돕는 상위담화 표지어의 적절한 사용이 학생들의 영어 독해력과 글쓰기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교재들을 바탕으로 상위담화 표지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추후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위담화지도와 영어 독해력, 글쓰기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더욱 폭넓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지희. “고등학교에서 영어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 권오량, 신상근, 이후고, 조자룡, 신인화, 오주혜. Edward Roland Gray.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 금성출판사, 2008.
- 김덕기. 『영어교육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 김덕기, 안병규, 오준일, 신인숙, 김향신, 나복희. Anna Dahland.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 천재교육, 2008.
- 김성곤, 윤정미, 송미정, 박용예, 강은경, 문도식, 윤미정, 정석환, Johanna L. Haas.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 두산출판사, 2008.
- 김영명. “담화구조 유형별 담화표지어를 활용한 읽기 전략이 영어독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2005.
- 김종찬. “글의 형식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고등학교 영어 읽기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6.
- 남혜은, 엄철주, 김정아, 오유나. “영어 L1과 L2 사용자의 학술 논문에 나타난 상위 담화 비교 분석” 『담화와 인지』.16, no.2 (2009. 8), pp.63-90
- 노원정. “NIE를 활용한 고등학교 영어 읽기 지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7.
- 박현제. “텍스트 글 구조의 도식화를 통한 효과적인 영어 읽기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6.
- 서진이.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읽기과업 분석 연구:독해의 4단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2003.
- 송희심. “한국의 영어 읽기교육 연구에 대한 고찰.” 『영어교육』, 55, no.4 (2000. 12), pp.367-388.
- 신성철 역, 『외국어 교수. 학습의 원리』. 서울: 한신문화사, 1987.
- 심재황. “요청화행에서의 환기소(alerter) 유형 분석 -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22, no.2 (2009. 6), pp.193-212.

이경희. “고등학교 「영어독해」 교과서의 읽기자료에 관한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2007.

이남우. “영어 읽기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2001.

이미애. “고등학교 2학년 영어(I) 교과서 비교 분석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4.

이민희, 임호열, 채영옥, 허준, 김동권, 김은정, 김윤자, 장혜진. 『High School English』. 경기도 파주 : 민중서림, 2008.

이병민, 박기화, 임인재, 문영인, 김영숙, 이주연, 박용호, Christian H. Kim.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 두산출판사 2008.

이성호, 한상호, 김진한, 이용훈, 윤소영, 윤영별, David E. Shaffer. 『High School English』. 경기도 파주 : (주) 다락원, 2008.

이완기, 이석재, 장은숙, 김성연, 나우철, 이병임, Ronald Todd Caldwell.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 금성출판사, 2008.

이인기, 윤승남, 남조우, 정용호, Thomas Orr.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천재교육, 2008.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선영, 전형주, Georgeanna Hall.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천재교육, 2008.

이주영.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상위담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4.

이준구. “영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4.

이찬승, 황우연, 안세정, 구은영, 김진홍, 이종은.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능률교육, 2008.

이창봉, 김혜영, 강규한, 고광윤, 박영걸, 최은주, 황경희. 『High School English』. 서울 : 도서출판 디딤돌, 2008.

이홍수, 차경환, 심진영, 이길영, 김정훈, 오장원, 이성희.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 진학사, 2008.

임병빈. 『영어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4.

임병빈, 김현진, 양은미, 이종복, 유철, 강문구, 허진희, Hubert H. Pak. 『High School English』. 경기도 파주 : 성안당, 2008.

임승연. “컴퓨터 게임을 활용한 영어 읽기 지도가 읽기 성취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6.

장영희, 정소영, 이유경, 한정임, 이승연, Mark Brown.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 능률교육, 2008.

장현주. “읽기를 중심으로 한 영어의 4기능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08.

신정현, 유명숙, 장운옥, 조금희.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 와이비엠시사, 2008.

정길정, 민찬규, 정현성, 김승태, 윤광진, 정미라, 김용석, 이석연, Walter A. Foreman.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8.

정호윤. “담화 구조 중심의 읽기 전략이 영어 독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3.

조은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읽기자료 분석 :유형, 소재, 문화 내용, 읽기 활동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8.

최경진.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읽기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2009.

최연희. 『영어과 교육론-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문화사, 1999.

최윤희.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읽기 지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6.

탁진화. “영어 대화 중심의 교수법을 활용한 중등영어 읽기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2007.

허선옥. “스키마의 활성화가 영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2004.

황규완. "영어 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 : 초·중등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효원영어영문학』, 15 (1997.2) pp.519-538.

- Adel, A. "Metadiscourse in L1 and L2 English." Amsterdam ; John Benjamins. 2006.
- Alireza Jalilifar, Mohammad Alipour, "How explicit instruction makes a difference: metadiscourse markers and EFL learners' reading comprehension skill" *Journal of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2007.
- Brown, H. Douglas. *Teaching by Principl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94.
- Cohen, Andrew et. al., "Reading English for Specialized Purposes: Discourse Analysis and the Use of Student Informations." *TESOL Quarterly*, 13, pp.551-564.
- Camiciottoli, B.C. Metadiscourse and ESP reading comprehension: An exploratory study.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5, no.1, pp.15-33. 2003.
- Carrel, P.L., "Facilitating ESL reading by teaching text structure." *TESOL Quarterly*, 19, pp.727-752. 1985.
- Carrel P. L. et al.,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Cambridge: Cambridge UP, 1998.
- Crismore, A. 1989. *Talking with readers: Metadiscourse as rhetorical act*. New York: Peter Lang Publishers, 86.
- Goodman, K. S. *The psycholinguistic nature of the reading process*.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3.
- Hyland. K. "Disciplinary interactions: Metadiscourse in L2 postgraduate writing."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3, pp.133-151, 2004.
- Hyland. K. & Tse, P. "Metadiscourse in academic writing: A reappraisal." *Applied Linguistics*, 25(2), pp.156-177. 2004.
- Hyland. K. *Disciplinary discourse : Social interactions in academic writing*. London: Longman. 2000.
- Hyland, K. *Metadiscourse: Exploring interaction in writing*. London: Continuum. 2005.

Margaret Moustafa, *Beyond Traditional Phonics*, 1997.

Mikulecky, Beatrice S. et. al., *Reading Power*. New York: Addison-Wesley P, 1986.

Neil. J Anderson,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2003.

Nida Burneikaite, Metadiscourse in linguistics master's theses in English L1 and L2. *Kalbotyra*, 59(3). 2008.

Ramsay, J. W. *Basic Skill for Academic Reading*.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6.

Jalilifar, Alireza; Alipour, Mohammad |, "How explicit instruction makes a difference:metadiscourse markers and EFL learners' reading comprehension skill." *Journal of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2007.

Parvaresh V. & Nemati M., "Metadiscourse and Reading Comprehension : The Effects of Language and Proficiency" *Electronic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5**, pp.220-239, 2008.

Schoenbach, Greenleaf, Cziko, Hurwitz. *Reading for Understanding : A Guide to Improving Read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2001.

Vande Kopple, W. Some exploratory discourse on metadiscours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6), pp.82-93. 1985.

Vande Kopple, W.J. . *Refining and applying views of metadiscourse*. Paper presented at the 48th Annu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Phoenix, AZ. 1997

Williams, J. W. *Style: Ten lessons in clarity and gra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pp.212, 1981.

## APPENDIX

### 부록 1. 교과서 각 과의 단어 수

출판사 과	금성 (권)	금성 (이)	능률 (장)	능률 (찬)	다락 원	두산 (김)	두산 (이)	디딤 돌	민중 서림	성안 당	중앙 교육	진학 사	천재 (김)	천재 (이인)	천재 (이재)	YBM sisa
1과	567	586	709	617	749	676	551	544	587	608	613	592	475	521	453	654
2과	632	702	639	655	629	711	516	641	779	596	640	576	688	528	519	534
3과	552	584	809	747	598	734	583	801	639	624	628	602	626	413	521	676
4과	646	595	689	722	668	751	584	720	629	704	538	512	680	561	494	734
5과	622	663	671	770	576	752	706	793	677	654	789	462	559	469	498	853
6과	643	616	634	710	763	1160	703	676	733	694	677	571	624	421	378	777
7과	527	715	691	701	660	603	653	470	663	927	725	583	670	551	593	618
8과	666	725	633	727	647	817	688	828	690	669	615	592	490	482	377	646
9과	1036	736	703	682	695	708	531	767	679	676	695	537	573	573	482	606
10과	624	636	931	739	727	705	782	687	704	656	587	550	625	390	589	659
11과	547	678	703	703	636	708	554		718	826	696	930		666	427	755
12과		548			620	743	952		710	872	773	988		384	424	
총	7062	7784	7812	7773	7968	9068	7803	6927	8208	8506	7976	7495	6010	5959	5755	7512
평균	642	648.7	710.2	706.6	664	755.7	650.2	692.7	684	708.8	664.7	624.6	601	496.6	479.6	682.9

부록 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구조적 상위담화와 대인적 상위담화 요소 비율 (Interactive / interactional)

출판사 \ 상위담화	Interactive 구조적 상위담화	Interactional 대인적 상위담화
금성권	394	440
금성이	438	594
능률장	393	627
능률찬	406	643
다락원	379	607
두산김	467	640
두산이	318	713
디딤돌	334	747
민중서림	436	677
성안당	440	686
시사	310	715
중앙교육	436	730
진학사	432	514
천재김	250	497
천재이인	288	449
천재이재	274	523
전체 비율 (%)	5995 (37.95%)	9802 (62.05%)

부록 2-1.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변화어(Transition)의 세부 항목 빈도

분류	and	how -ever	but	then	thus	though /even though	therefore	second *	first *	finally	in addition (to)	instead	more -over	at the same time	altho ugh	also (문두) / , also	and then	again	as a result	because	on the other hand
금성권	190	9	36	8	0	2	0	2	14	4	2	2	0	1	2	0	0	1	2	9	3
금성이	202	14	30	10	0	2	3	3	10	4	0	4	0	0	2	2	1	4	1	23	2
능률장	222	5	43	14	4	2	0	1	6	2	1	2	0	3	0	1	5	7	0	10	0
능률찬	196	10	44	7	1	5	1	0	17	4	2	2	0	1	3	0	1	3	1	8	0
다락원	182	5	37	10	1	2	1	3	9	3	1	1	1	2	0	2	2	7	4	10	0
두산김	200	13	46	17	2	0	0	4	25	3	4	5	1	2	2	0	3	3	1	15	3
두산이	100	10	35	16	1	1	4	11	17	1	1	1	0	0	3	3	2	4	1	5	0
디딤돌	144	12	37	15	0	3	0	2	19	2	1	0	2	4	2	1	3	7	1	14	2
민중서림	240	2	39	15	0	2	1	2	15	2	0	3	0	1	0	5	4	5	1	15	0
성안당	213	8	52	12	1	3	2	3	20	1	2	5	0	0	3	4	3	5	1	11	2
시사	135	13	26	25	0	1	0	5	14	2	0	0	0	0	1	4	3	1	0	9	0
중앙교육	188	18	37	20	0	2	1	1	27	7	2	4	0	0	4	2	4	3	0	17	2
진학사	204	17	23	12	2	1	2	2	15	5	3	2	2	5	2	1	1	1	0	18	2
천재김	107	4	30	9	0	2	0	1	8	3	3	1	0	1	1	0	0	1	2	13	1
천재이인	161	4	33	11	0	0	0	0	6	1	0	3	0	6	0	0	0	2	1	17	0
천재이재	128	4	28	8	1	1	0	2	7	3	2	3	1	3	2	0	1	3	0	6	0
총 빈도수	2812	148	576	209	13	29	15	42	229	47	24	38	7	29	27	25	33	57	16	200	17

개정교과서에서 사용횟수가15회 이하인 furthermore, moreover, equally, neverthelss, and therfore, and thus, rather, thereby, in spite of, on the contrary, in the same way, in contrast, alternately, by contrast, next, nontheless, similarly, conversely, still, yet, likewise, notwithstanding, on the one hand, above all, correspondingly, additionally, accordingly, by the same token, besides, lead to, result in, the result is, so as to, whereas, hence, consequent\* 등은 지면관계상 표에서 제외시켰다.

부록 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구조어(Frame Markers)의 세부항목 빈도

분류	th* result*	therefore (요약)	so (문두)	so far	Then (문두)	as a result	event -ually	finally	합계
금성권	0	0	13	0	5	2	3	4	31
금성이	0	3	25	0	8	1	0	4	44
능률장	0	0	11	1	7	0	0	2	23
능률찬	0	1	21	1	4	1	1	4	34
다락원	0	1	12	0	3	1	0	3	21
두산김	0	0	8	1	9	1	1	3	25
두산이	1	4	2	0	11	1	1	1	21
디딤돌	0	0	5	2	5	0	0	2	18
민중서림	1	1	17	0	7	0	0	2	31
성안당	1	2	10	1	3	0	4	1	26
시사	2	0	1	0	15	1	0	2	24
중앙교육	1	1	15	0	9	0	1	7	35
진학사	2	2	12	1	6	1	2	5	35
천재김	0	0	15	1	5	2	0	3	26
천재이인	2	0	10	1	4	1	0	1	20
천재이재	0	0	12	1	4	4	0	3	24
총 빈도수	10	15	189	10	105	16	13	47	438

구조어에 속한 표지어 중에서 개정교과서에서 사용횟수가10회 이하인 th\* study, the present study, th\* finding\*, overall, this result, th\* analysis, hence, in short, as a consequence, subsequently, th\* paper, further, in this paper, th\* purpose, to begin with, in the end, concl\*, lastly, to sum up 등은 표에서 제외시켰다.

부록 2-3.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지시어(Endophoric)의 세부 항목 빈도

	The first *	(In) (this) chapter	(In) this part	example	above	below	earlier	later	page	합계
금성권	6	1	0	3	0	0	2	1	0	13
금성이	1	0	1	0	0	2	0	1	0	5
능률장	3	0	0	0	0	0	0	1	0	4
능률찬	3	0	0	1	0	0	0	0	0	4
다락원	2	0	1	0	0	0	0	3	0	6
두산김	12	0	0	8	0	1	0	2	0	23
두산이	8	0	0	0	1	0	0	2	1	12
디딤돌	4	0	0	2	0	0	0	2	0	8
민중서림	4	0	0	0	0	0	0	4	1	9
성안당	11	0	0	2	0	0	1	1	0	15
시사	5	0	0	2	0	1	0	3	0	11
중앙교육	13	0	0	0	0	0	0	1	0	14
진학사	5	2	0	2	1	0	0	0	2	13
천재김	2	0	0	1	0	0	0	1	0	4
천재이인	1	0	0	2	0	0	0	0	0	3
천재이재	3	0	0	0	0	0	0	0	0	3
총 빈도수	83	3	2	23	2	4	3	22	4	147

지시어에 속한 표지어중 개정교과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표지어인 see Fig\*, as follows, in section\*, noted above, before, table는 표에서 제외시켰다.

부록 2-4.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출처어(Evidentials)의 세부 항목 빈도

	*(19*)/ *(20*)	according to*	propose*	state*	합계
금성권	0	1	0	0	1
금성이	0	0	0	0	0
능률장	0	1	0	0	1
능률찬	0	0	0	0	0
다락원	0	4	0	2	6
두산김	0	3	0	2	5
두산이	6	1	0	1	8
디딤돌	0	0	0	0	0
민중서림	0	1	0	0	1
성안당	0	5	0	0	5
시사	0	1	1	0	2
중앙교육	0	2	0	0	2
진학사	0	4	0	1	5
천재김	0	2	0	0	2
천재이인	0	2	0	0	2
천재이재	0	2	1	0	3
총 빈도 수	6	29	2	6	43

출처어에 속한 표지어중 개정교과서에서 사용 횟수가 0회인 (to) cite, (to) quote, cited, quoted는 표에서 제외시켰다.

부록 2-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Reformulation(재진술)의 세부 항목 빈도

	:	(*)설명만 포함, ie., eg는 빼기	*'	especially	th* means	it means	called	in fact	[*]
금성권	1	11	28	1	2	3	0	1	0
금성이	0	0	18	3	4	0	1	2	0
능률장	0	0	1	0	1	1	3	2	2
능률찬	0	12	2	0	0	0	2	2	0
다락원	0	9	2	2	0	2	2	3	0
두산김	2	0	10	2	0	2	2	4	0
두산이	13	11	0	0	2	0	0	2	0
디딤돌	0	0	2	1	0	1	1	0	0
민중서림	0	0	1	1	1	5	4	1	0
성안당	0	0	0	1	2	1	2	2	0
시사	1	1	3	2	0	0	2	2	0
중앙교육	0	0	14	1	1	0	4	0	0
진학사	0	3	1	3	0	1	7	5	8
천재김	2	2	4	0	1	1	2	1	0
천재이인	0	0	0	0	0	1	3	0	0
천재이재	0	0	1	1	0	0	3	3	0
총 빈도수	19	49	87	16	14	18	38	30	10

재진술에 속한 표지어중 개정교과서에서 사용횟수가 10회 미만 표지어인 in particular, particularly, specifically, I mean, which means, in other words, namely, that is, that is to say, I.e., viz, or, known as, indeed, defined as, put another way는 표에서 제외시켰다.

부록 2-6.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유보어(Hedges)의 세부 항목 빈도

	seem *	around	almost	often	suggest *	feel *	felt	kind of	may	usually	might	would be	quite	should	some -times	about (약)	guess	probabl *	certain*	합계
금성권	3	10	2	7	0	1	0	0	6	5	3	1	0	1	6	6	1	1	2	65
금성이	2	6	3	4	1	7	7	3	8	3	7	0	1	7	4	6	0	2	6	93
능률장	5	4	2	0	1	6	0	4	14	2	0	6	1	15	5	4	0	1	0	86
능률찬	2	11	4	0	0	6	3	1	7	2	3	3	1	6	3	0	2	0	3	73
다락원	5	12	5	1	1	8	1	1	14	1	2	0	0	10	0	3	2	0	5	95
두산김	5	7	3	10	5	3	3	1	5	5	3	3	0	9	2	1	1	2	0	84
두산이	11	13	1	6	0	7	3	1	16	3	2	4	0	12	7	8	1	4	2	113
디딤돌	7	10	5	12	1	17	8	0	5	2	7	6	2	7	3	7	2	1	0	113
민중서림	4	6	1	3	2	6	3	4	3	3	1	0	3	11	4	2	4	0	1	66
성안당	4	11	5	3	2	6	6	2	9	2	4	3	2	11	3	1	2	2	2	102
시사	3	7	1	4	3	4	3	2	9	1	3	3	4	6	2	4	2	2	1	85
중앙교육	1	20	2	3	3	6	9	3	11	2	4	5	2	11	1	5	1	1	1	97
진학사	3	5	3	12	3	5	0	2	15	5	2	0	3	10	2	2	1	0	1	94
천재김	2	8	4	7	2	6	0	2	3	1	7	2	1	6	2	2	6	1	2	73
천재이인	3	10	0	3	2	6	1	3	3	0	2	1	1	3	1	1	0	3	2	58
천재이재	6	10	1	5	4	8	1	3	6	1	1	1	4	7	1	2	0	0	2	79
총 빈도수	66	150	42	93	30	102	48	32	134	38	51	38	25	132	46	54	25	20	30	1376

유보어에 속한 표지어중 개정교과서에서 사용횟수가 20회 미만 표지어인 suppose\*, argue\*, ought, broadly, fairly, suspect\*, \*likely, indicate\*, relatively, generally, frequently, in general, claim\*, perhaps, apparent\*, typical\*, somewhat, reveal\*, largely, assume\*, doubt\*, essentially, impl\*, approximately, mostly, maybe, palusible\* mainly, on the whole, sort of, uncertain\*, estimate\*, indicate\*, in \* opinion, in \* view, in most instances, from \* perspective, to \* knowledge, presumabl\*, postulate\*, roughly, unlikely, unclear\*, in \* case, rather는 표에서 제외시켰다.

부록 2-7.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촉진어(Booster)의 세부 항목 빈도

	must	think *	thought	realize *	certain * / it is certain	find/ found	show *	important* / it is important	believe *	always	strong* / it is strong	know *	tru *	never	really	sure *	actuall y	in fact	합계
금성권	0	9	1	1	2	9	9	3	2	4	1	8	4	7	3	4	0	1	73
금성이	2	11	7	0	6	3	6	11	5	3	5	13	9	4	4	4	2	2	100
능률장	5	21	2	0	0	2	8	9	3	8	5	23	3	4	4	2	1	2	104
능률찬	1	18	7	1	3	5	19	5	5	8	5	15	5	7	9	9	2	2	131
다락원	0	19	0	3	5	3	2	7	2	7	6	9	12	7	14	5	3	3	110
두산김	2	20	5	4	0	5	5	8	3	7	3	11	3	6	5	2	0	4	94
두산이	2	23	1	2	2	4	8	9	7	11	1	23	7	13	9	7	5	2	140
디딤돌	1	14	7	11	0	3	2	8	5	4	1	11	9	7	7	3	4	0	101
민중서림	2	17	4	0	1	6	7	13	3	17	1	19	8	5	0	4	4	1	115
성안당	3	7	8	7	2	3	12	13	1	5	6	20	7	10	8	2	3	2	123
시사	2	14	17	4	1	9	13	1	4	4	2	25	13	5	7	8	2	2	137
중앙교육	2	15	8	3	1	6	17	15	3	10	2	15	15	10	2	0	4	0	132
진학사	0	11	2	1	1	3	9	12	5	6	4	16	7	2	11	5	1	5	106
천재김	1	15	5	2	2	1	10	4	1	4	4	8	2	2	8	7	5	1	85
천재이인	5	12	1	1	2	2	3	4	3	15	1	22	19	7	3	8	3	0	117
천재이재	3	14	2	1	2	4	10	4	5	3	2	14	3	1	10	6	2	3	98
총 빈도수	31	240	77	41	30	68	140	126	57	116	49	252	126	97	104	76	41	30	1766

촉진어에 속한 표지어중 개정교과서에서 사용횟수가 30회 미만 표지어인 conclusively, decidedly, demonstrate\*, significantly, it is significant, it is clear that, indeed, establish\*, obvious\*, prove\*, of course, evident\*, incontrovertible\*, incontestable\*, undisputedly, doubtless, definite\*, it is definite, evident\*, it is evident, notable\*, it is notable, striking\*, it is striking, undeniable\*, undisputable\*, undoubted\* 는 표에서 제외시켰다.

부록 2-8.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태도어(Attitude Markers)의 세부 항목 빈도

	even	usual*	unfortunate *	surprising* / it is surprising	prefer*	interesting* / it is interesting	agree *	amaz*	important *	surpris*	expected*	curious*	합계
금성권	7	6	0	2	5	2	1	1	3	2	1	0	31
금성이	13	3	2	3	5	0	1	0	8	4	0	0	46
능률장	10	2	0	1	2	1	1	5	9	1	2	1	38
능률찬	16	2	1	1	0	3	2	6	5	3	1	1	43
다락원	14	1	0	0	0	0	1	4	7	2	1	0	37
두산김	9	7	1	2	0	0	2	0	8	3	1	2	41
두산이	11	3	0	2	0	0	3	3	9	5	0	0	43
디딤돌	10	3	1	0	0	1	1	3	8	2	0	0	38
민중서림	7	4	3	0	2	0	4	2	12	3	1	1	41
성안당	10	2	0	1	1	3	0	4	13	1	1	0	45
시사	14	1	1	0	2	1	4	0	1	3	2	0	35
중앙교육	18	2	0	1	0	4	4	0	13	5	2	5	54
진학사	9	5	2	0	1	2	1	2	10	1	1	1	40
천재김	9	3	1	4	0	6	6	1	3	6	1	0	41
천재이인	6	0	0	0	0	1	1	2	4	2	1	0	19
천재이재	7	2	2	1	0	4	1	1	3	5	0	0	28
총 빈도 수	170	46	14	18	18	28	33	34	116	48	15	11	620

태도어에 속한 표지어중 개정교과서에서 사용횟수가 10회 미만 표지어인 unexpected\*, understandabl\*, remarkabl\*, fortunate\*, essential\*, !, astonish\*, dramatic\*, desirabl\*, correct\*, admittedly, appropriate\*, striking\*, disappoint\*, disagree\*, hopeful\*, inappropriate\*, remarkabl\*, shock\*, unbelievabl\* 는 표에서 제외시킴.

부록 2-9.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계약표지어(Engagement Markers)의 세부 항목 빈도

	use	see	go	show	find	turn	look at	need to	add	consid -er*	think about	allo w	follo w	remem -ber	found	order	devel -op	went	have to	must	saw	pay	pict ure	imagin e	합계
금성권	21	2	11	9	4	3	5	2	0	7	1	2	3	1	9	1	3	8	0	0	2	0	3	2	125
금성이	24	6	6	6	9	1	2	10	6	2	2	4	2	1	3	0	5	8	6	7	3	7	4	0	150
능률장	13	12	10	8	6	3	4	3	1	1	7	2	0	5	2	1	5	2	3	13	1	3	4	2	139
능률찬	27	15	6	18	10	4	8	7	1	4	5	1	2	1	5	2	9	2	1	4	4	3	13	4	188
다락원	9	7	7	2	7	6	3	9	0	3	4	1	3	4	3	5	5	2	4	0	0	1	3	0	119
두산김	18	18	15	4	3	7	4	5	2	2	2	1	2	3	5	2	7	11	4	3	11	13	5	4	174
두산이	20	26	12	5	5	17	13	9	12	2	3	6	7	2	4	3	2	4	10	9	0	4	4	8	210
디딤돌	19	15	18	1	6	9	6	3	1	1	4	4	4	3	3	4	2	5	8	1	3	0	4	4	151
민중서림	32	13	13	6	9	7	6	8	1	2	2	0	6	9	6	1	1	5	9	2	4	2	2	0	161
성안당	22	20	6	8	8	5	4	6	1	0	2	3	1	3	3	3	5	7	3	9	2	2	2	3	151
시사	7	8	8	9	6	13	8	1	4	3	1	1	7	3	9	2	0	6	5	5	4	3	11	0	148
중앙교육	15	8	7	12	10	6	4	7	2	2	4	4	7	2	6	2	1	5	7	8	5	21	4	1	172
진학사	25	9	6	6	7	5	0	4	0	8	1	6	5	2	3	2	15	1	3	6	1	0	1	1	150
천재김	18	10	16	8	5	4	5	1	0	1	1	7	3	5	1	2	1	4	4	2	3	4	0	0	120
천재이인	10	10	5	3	4	3	6	1	0	0	4	1	3	1	2	0	5	5	2	7	2	1	1	2	88
천재이재	9	6	8	9	3	8	2	1	0	6	0	0	5	1	4	1	2	6	4	5	5	1	2	0	113
총 빈도수	289	185	154	114	102	101	80	77	31	44	43	43	60	46	68	31	68	81	73	81	50	65	63	31	235 9

계약표지어어에 속한 표지어중 개정교과서에서 사용횟수가 30회 이하 표지어인 incidentally, by the way, let us, let's, assume, arrange, calculate, compare, consult, measure, recall, contrast, refer, demonstrate, note that, appl\*, ensure, regard, analyse\*, assess, classify, define, evaluate, estimate, notice, observe, select\*, take account of, take a look, take an example, choose, chose\*, connect, employ, go\*, review, recover, remove, increase, input, insert, key, mark\*, mount, state, saw, suppose, integrate, prepare, think of는 표에서 제외시킴.

부록 2-10.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자신 언급어(self-mentions)의 세부 항목 빈도

	we	I	our	my	us	me	mine	the author	the writer	합계
금성권	26	65	10	24	6	12	3	0	0	146
금성이	42	86	15	37	7	16	1	0	1	205
능률장	38	134	18	35	10	25	0	0	0	260
능률찬	64	70	35	16	12	11	0	0	0	208
다락원	75	83	25	25	26	11	0	1	0	246
두산김	35	116	19	33	17	27	0	0	0	247
두산이	36	106	12	22	10	19	0	1	1	207
디딤돌	83	151	27	54	14	15	0	0	0	344
민중서림	63	141	11	48	14	17	0	0	0	294
성안당	34	140	16	30	19	24	1	1	0	265
시사	37	170	5	63	4	31	0	0	0	310
중앙교육	19	144	12	61	12	27	0	0	0	275
진학사	42	32	14	12	11	8	1	1	3	124
천재김	34	59	19	28	14	24	0	0	0	178
천재이인	30	81	12	22	8	14	0	0	0	167
천재이재	67	71	11	28	13	14	1	0	0	205
총 빈도 수	725	1649	261	538	197	295	7	4	5	3681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68203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민정 한문 : 金 旼 貞 영문 : Kim Min-Jung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 3동 덕림맨션 1동 406호				
연락처	E-MAIL : kahki9@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상위담화 표지어 연구 - 개정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 영어 : A Study on Metadiscourse Markers - Centering on revise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				
<p>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li> <li>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li> <li>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li> <li>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li> <li>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li> <li>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li> <li>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li> </ol>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b>동의여부 : 동의( O )    반대(    )</b>                  2010 년    1 월    4 일                  저작자: 김민정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size: 1.2em;">조선대학교 총장 귀하</p>					